

통일사상으로 본 대화의 이해

- 심정의 대화법을 중심으로 -

조 광 봉

청심신학대학원대학교

〈요 약〉

본 논문은 통일교의 교리에 따른 통일사상을 기초로 하여 대화에 대한 체계화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있다. 특히 심정적 대화법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루고자 한다.

통일사상에 의하면 인간은 자체 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의 사이에서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인간은 관계를 맺는 동기나 목적이 사랑과 연관 있다. 통일사상에 의하면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의 중심 속성인 심정에 의한 것으로 이해한다. 통일사상에 의하면 이상적 인간상을 심정적 존재로 설명한다. 인간은 본래 심정이 동기가 되어서 창조되었고, 심정에 의해서 관계 맺고, 심정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심정에 의해 살아가는 인간은 대화의 관계나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인간은 심정의 의한 관계를 형성하는 대화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통일사상에 의하면 인간은 내외의 상대적 관계를 지니고 있어서 내외의 대화구조를 가진다. 자체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구조와 마음의 욕구를 밖으로 표현하는 외적 대화구조가 그것이다. 대화는 동기나 목적에 의하여 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그에 따른 반응이나 결과를 얻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심정의 대화는 하나님의 속성인 심정이 동기가 되거나 그에 따른 목적이 중심이 되어 나누는 대화이다. 심정의 대화는 심정에 의한 공감의 대화와 심정에 따른 실천의 대화로 구성된다. 심정이 동기가 되는 대화는 상호간의 일치점을 추구한다. 심정에 의한 목적이 중심이 된 대화는 상호간에 새로운 결과를 얻는 실천을 중시하는 대화이다.

심정의 대화법은 하나님의 중심 속성인 심정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화가 가능하도록 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방법이다. 그것은 먼저 인간 자체 내에서 심정의 내면화를 추구하는 대화에 있고 타인과 대화에서 심정의 일치화, 함께 만들어가는 심정의 생활화를 지향하는 대화에 있다.

핵심 주제어: 대화, 수수작용, 사위기대, 정분합 작용, 심정의 대화, 심정의 공감, 심정의 실천, 심정의 대화법,

I. 시작하며

대화(dialogue)는 두 명 혹은 그 이상이 참여하는 언어적 의사소통 행위¹⁾이다. 이러한 대화는 회화(conversation)나 담론(discourse)과 같이 그 요건이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대화는 그 구조나 유형은 고정적이지 않다. 대화는 그 목적이나 동기, 상관관계,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화는 또한 각 종교의 교리적 배경과 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대화법과 유형을 달리 할 수 있다.

대화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따라서 대화는 대화의 구조나 요건의 이해가 선결과제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화 요건은 ① 대화의 기준이나 의사소통의 목적이 있고, ② 대화하는 데 관계형성이나 주제적 관련성이 있으며, ③ 두 명이 일대일로 구체적인 의사소통에 참가하며, ④ 구체적인 결과를 수반하는 행위로 한정해서 다루고자 한다.

통일교의 교리서인 『원리강론』²⁾에 의하면 인간은 마음과 몸의 상대적 관계가 개체 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에서 수수작용(授受作用)하면서 생존, 작용, 번식하는 존재이다.³⁾ 이러한 인간의 존재구조는 대화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존재구조가 자체 내의 상대적 관계를 기초로 하여 다른 존재들과의 상대적 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화구조도 자체 내에서의 구조와 상대방과의 구조가 일정한 공간적 형태와 시간적 단계를 갖는 형태이다.

『통일사상요강』에 의하면 상대적 관계를 동기나 목적에 의하여 구분한다.⁴⁾ 대화는 언어에 의한 상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대화의 동기나 목적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원리강론』을 철학적으로 체계화하여 정리한 『통일사상요강』에 의하면 인간은 한없이 사랑하고 싶어 하는 심정(心情)⁵⁾이 중심일 때는 서로 하나 되는 합성체(合性體)를 형성하고, 심정에 의한 목적이 중심이 될 때는 새로운 결과물인 신생체(新生體)를 형성한다는 것이다.⁶⁾

1) 금성출판사서부, 『국어사전』 (서울: 금성교과서주식회사, 1988), 318쪽.

2)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 (서울: 성화출판사, 1994)

3) 위의 책, 22쪽 참조.

4)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서울: 성화출판사, 1994), 85쪽.

5) 위의 책, 58-64쪽 참조.

6) 위의 책, 85쪽.

이러한 심정이 중심이 된 대화는 상호간에 일치를 추구하는 대화와 목적에 따른 신생체를 도출하는 대화로 구분 할 수 있다.

심정이 중심이 된 대화는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여 원만히 대화가 가능한 ‘대화적 인간’⁷⁾을 지향한다. 이러한 대화적 인간은 하나님의 중심 속성인 한없이 사랑하고 싶은 정적인 충동인 심정적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심정의 대화가 가능한 심정적 존재⁸⁾이다.

통일사상으로 본 대화에 대한 이해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대화의 요건과 구조를 갖추어서 심정의 대화가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있다. 그것은 먼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속성인 심정에 의한 대화법을 찾고,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심정공동체⁹⁾를 형성하는 대화권을 형성할 때 가능할 것이다.

본 논문은 통일교 교리서인 『원리강론』과 이를 철학적으로 체계화 한 『통일사상요강』을 기초로 하여 대화에 관한 논거인 인간의 존재구조에 따른 수수작용의 유형과 형태를 살펴보고 심정의 대화에 초점을 맞추어 통일사상으로 본 대화를 체계적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데 있다.

II. 대화에 관한 통일사상적 근거

1. 존재구조와 존재양상

통일교 교리서인 『원리강론』에 의하면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성과 음성, 성상(性相)과 형상(形狀)의 이성성상(二性性相)의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존재한다.”¹⁰⁾ 인간 또한 마음과 몸의 상대적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대화적 존재이다. 인간 뿐만 아니라 자연만물도 인간의 마음에 해당하는 성상적 요소와 인간의 몸에 해당되는 형상적 요소의 상대적 관계를 맺는다.

『통일사상요강』에 의하면 인간은 개성체(個性體)이면서 연체(聯體)이다.¹¹⁾ 인간은 성상적 요소와 형상적 요소가 결합하여 개발상을 띤 존재이다. 개별상(個別相)은 성상과 형상의 보편상이 개별화된 것이다.¹²⁾ 인간은 개인별 개별상을 지닌다. 따라서 대화는 개인적인 태도나 방식에 있어서 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또한 상호 연관을 맺고 살아가는 연체적 존재¹³⁾이다. 상호간의 관계에서 주체에 대한 대상의 위치와 대상에 대한

7) Paulo Freire, *Pedagogy of the Oppressed*, 남경태, 『페다고지』 (서울:도서출판 그린비, 2007), 116쪽.

8) 통일사상연구원, 앞의 책, 242쪽.

9) 위의 책, 246쪽.

10)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앞의 책, 22-23쪽 참조.

11) 통일사상연구원, 앞의 책, 240쪽, 252쪽 참조.

12) 위의 책, 54쪽.

주체의 위치를 동시에 지닌 연체로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화는 자체 내에서 뿐만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에 의한 표현이고 반응이다.

인간의 성상인 마음의 요소에는 개인마다 성격유형에 따른 격차를 가지고 있으며, 형상인 몸의 요소에도 생김새의 모양이나 특징, 에너지에 따른 격차를 가진다. 대화는 심적 상태에 따라 음색이 달라질 수 있고 외적인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인간의 마음과 몸에 형성되어 있는 개인적 격차를 각각 양성과 음성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양성과 음성은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기능적 격차를 표현하는 개념이다. 양성과 음성은 성상과 형상의 속성으로서의 차이이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면 양성이고,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면 음성이다. 양성과 음성은 성상과 형상의 속성이 관계 속에서 나타난 상대적 격차이다. 인간은 마음과 몸의 개성에 따라 그 속성이 양성과 음성의 격차를 상대적 관계에서 갖게 되어 대화에 있어서 개성을 지닌다.

성상과 형상은 관계를 맺는 포괄적인 동기나 목적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그 속성인 양성과 음성은 상황적 위치나 상태에 따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요인이다. 대화는 직접적인 표현기법이나 방식인 양성과 음성의 관계에 영향을 받지만 근본적으로는 마음가짐이나 몸의 행위인 성상과 형상의 영향을 받는다.

『통일사상요강』에 의하면 인간은 심정적 존재이다.¹³⁾ 한없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인 심정이 동기가 되어서 마음과 몸이 상대적 관계를 맺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대화가 원만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마음 안에서 심정과 연관된 내면의 대화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외적으로 언어를 표현하는 태도나 방식에 유의할 때 심정에 의한 대화가 가능하다.

상대적 관계를 통해서 존재하는 인간은 그에 따른 존재양상을 갖는다. 이러한 존재양상은 주체를 중심으로 대상이 그 주위를 도는 원환운동¹⁵⁾ 형태를 띤다. 모든 존재는 그 자체 내에서 주체와 대상이라는 상대적 요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밖으로 다른 존재들과의 사이에서 주체와 대상의 상대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상호 연관성을 맺고 운동해야 가능하다.¹⁶⁾ 존재양상의 기본은 수수작용(授受作用)¹⁷⁾의 형태이다. 주체가 대상을 리더하고 대상은 주체에 반응하면서 서로 연관되어 복합적인 수수작용의 형태가 원환운동이다.

대화에 있어서도 일시적 언어 습득과 표현기법을 배워서 완숙한 대화에 도달할 수 없다. 관계를 통한 다양한 경험에 의한 내외적 성숙을 통해서 대화의 태도나 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다. 대화는 지속할수록 원환운동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상호간에 원만해지고

13) 위의 책, 252-262쪽 참조.

14) 위의 책, 242쪽.

15) 위의 책, 205쪽.

16) 위의 책, 222쪽.

17) 위의 책, 84쪽.

갈등요소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인간은 지구가 자전운동과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운동을 함께 하는 것처럼 공간적 원환운동¹⁸⁾의 수수작용의 형태를 띠면서 생존하고 발전한다. 인간은 개성에 따라 개인적 활동과 생활을 해 나가며, 가족 구성원 중에서 부모와 같이 주체에 의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또한 가정은 독립적 형태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국가의 조직 기반 하에서 관계를 맺으며 생활한다. 대화는 선택만 있지 않다. 생존의 관점에서 보면 상황에 구애를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속성을 지닌다.

인간은 또한 자연의 많은 생명체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처럼 시간적 형태의 원환운동¹⁹⁾을 하면서 살아간다. 인간의 생명의 순환운동을 보면 임신을 통해 자녀를 낳고 성장하여 어른이 되고 다시 임신할 수 있는 생식기능을 갖추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생명적 순환운동을 이어간다. 시간적 원환운동은 목적성, 단계성, 시간성의 특징을 가진다.²⁰⁾ 이러한 형태의 대화는 이야기식 대화(story telling)이다. 기승전결의 형태로 이야기의 전개가 있고 시간적 단계성과 변화 발전의 목표가 담지 된 대화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변형적 원환운동²¹⁾ 형태도 갖는다. 인간이나 동물의 세포의 경우처럼 세포 자체가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의 내용물이 순환하면서 대체형태의 원환운동도 있다. 대화는 자신이 직접 표현하는 형태도 있지만 타인에 의해서 표현되어질 수 있다. 말하는 것만 대화가 아니라 듣는 것도 대화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정신적 원환운동도 한다. 인간은 지정의(知情意)²²⁾적 욕구에 따라 기존에 형성된 내적형상인 관념, 개념, 원칙, 수리적 요소에 따라 신개념을 구성한다. 이를 몸으로 표현하고 외부적 상황을 내면에 수용하면서 정신적 활동을 반복한다. 특히 종교생활은 수양이나 명상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정신적 원환운동²³⁾을 추구한다. 이것은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면적 대화에 해당한다. 외적인 경험요소가 내면에 침잠하여 재생하는 과정이다.

인간은 마음 안에서, 마음과 몸의 관계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집단적 활동에서 개별적 운동과 상호 연관된 운동을 병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주고받는 수수작용에 의한 원환운동을 통해 생존하고 발전한다. 대화 또한 중단될 수 없으며 내면의 대화에서부터 다양한 형태의 대화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관계 맺고 소통하는 원환운동의 형태이다.

18) 위의 책, 208쪽.

19) 위의 책, 209쪽.

20) 위의 책, 208쪽.

21) 위의 책, 211쪽.

22) 위의 책, 33쪽.

23) 위의 책, 212쪽.

2. 수수작용 형태와 유형

수수작용은 주체와 대상이 상대적 관계를 형성하여 공통요소를 중심으로 주고받는 작용이다.²⁴⁾ 상호간에 주고받는 수수작용은 반드시 관계를 맺는 중심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를 수반한다.²⁵⁾ 수수작용의 공간적 형태를 보면 관계를 맺는 중심, 주체, 대상, 결과의 4개의 위치가 상호간에 상대적 관계에 의한 사위기대(四位基臺)²⁶⁾를 구성한다. 수수작용은 4개의 위치를 터로 하여 이루어지는데 4개의 위치는 고정적이지만 그 위치에 세워지는 실제의 요소는 다양하다.

수수작용은 공간적 구조인 사위기대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수수작용은 반드시 4개의 위치가 동등한 관계를 맺는 형태를 취할 때 이루어진다. 주체와 대상이 상호간에 주고받는다 고 해서 온전한 수수작용이라 할 수 없다. 한쪽에 의한 일방적인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일시적인 형태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수수작용은 상호간에 관계를 맺는 동기나 목적을 함께 공유하고,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아서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공감하고 만족하는 형태를 취해야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대화에 있어서도 발화자와 수화자는 주고받는 형태가 온전한 대화라고 할 수 없다. 대화하는 동기나 목적 그에 따른 결과를 공유할 때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수수작용의 형태는 사위기대의 형태를 취할 때 3대상 목적²⁷⁾을 이룬 상태이다. 3대상 목적이란 중심, 주체, 대상, 결과의 4개의 위치가 제각기 주체의 자리에 설 때 나머지 3존재가 대상의 자리에서 주체의 목적을 지향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한다. 곧 4개의 위치는 상호간에 주체가 될 때 나머지가 대상의 자리에 설 수 있어서 모두가 주체이면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수수작용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주고받으려는 주체의 욕구뿐만 아니라 나머지 위치에 있는 대상도 주체가 되어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이다. 대화 또한 주체의 자리에만 고정되면 이루어질 수 없다. 대상의 자리에 설 수 있어서 대화의 동기나 목적 그에 따른 결과에 순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을 때 대화가 가능하다.

수수작용은 또한 시간적 형태를 취한다. 수수작용은 단계적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상대적 관계의 중심인 동기나 목적을 세우는 단계, 수수작용 할 주체와 대상의 위치를 정하는 단계, 그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는 단계가 그것이다. 『통일사상요강』에서는 이를 각각 정(正)의 단계, 분(分)의 단계, 합(合)의 단계로 설정하여 정분합(正分合) 작용²⁸⁾으로 설명한다.

수수작용을 정분합 작용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正)의 단계로서 목적을 분명히 하는 단계이다. 인간을 비롯한 자연만물은 사랑이 중심이 된 상대적 관계

24) 위의 책, 84-85쪽.

25) 위의 책, 85쪽.

26) 위의 책, 89쪽.

27)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앞의 책, 34쪽.

28) 통일사상연구원, 앞의 책, 141쪽.

를 이루게 된다. 사랑은 주체와 대상의 상대적 관계를 쉽게 형성하게 해주며 상호간의 차이와 격차를 줄이도록 해준다. 대화에 있어서도 사랑의 대화가 가장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정(正)의 단계는 대화의 동기나 기준을 확인하고 상호간에 신뢰가 형성된 단계이다.

둘째, 분(分)의 단계로서 정(正)의 단계에서 세운 목적을 수행하는 상대적인 관계에서 주체나 대상의 위치를 취하는 단계이다. 분(分)의 단계는 서로 위해주는 상대적 관계를 형성한 상태다. 상호 의견차이나 격차를 보일지라도 함께 발전하고 하나 되고자 하는 공동의 목적에 따른 주체와 대상의 입장에서 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분(分)의 단계로 접근하게 된다.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사랑의 기준에 따라 각자의 입장과 역할에 따라 원만치 못하다. 분(分)의 단계는 정(正)의 기준에 따라 자신과 상대의 입장과 상황을 파악하여 대립적 요소를 넘어선 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셋째, 합(合)의 단계로서 분(分)의 단계를 거쳐서 수수작용에 의한 결과물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합(合)의 단계는 인위적인 결과의 유도나 왜곡이 없는 자연스런 결과에 따른 순응과 성찰의 과정이다. 대화의 과정에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심이 되면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게 될 때 기쁨²⁹⁾을 수반한다. 대화의 결과가 기쁨이나 이에 준하는 심적 상태를 얻지 못할 때는 정분합작용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를 성찰하여 기쁨을 얻을 때까지 다시 단계적인 과정의 반복이 필요하다.

수수작용의 공간적 형태인 사위기대와 시간적 형태인 정분합 작용은 동시에 이루어진다.³⁰⁾ 이러한 시공간적 구조는 이미 형성된 인간의 존재구조에 따른 형태이다. 인간은 내외적 수수작용이 가능한 존재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마음 안에서 내적성상(內的性相)과 내적형상(內的形狀)의 내적인 상대적 관계에 의해서 마음의 작용이나 상태가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마음은 몸을 통해서 표현되는 외적인 상대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처럼 인간은 내외적 2단구조³¹⁾를 지닌 존재이다.

또한 정분합 작용의 시간적 형태를 떠는 수수작용의 결과는 크게 합성체(合性體)와 신생체(新生體)로 나타난다.³²⁾ 합성체는 심정이 중심이 되어 일치, 조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결과이다. 신생체는 목적을 중심으로 하여 주체와 대상과 다른 제3의 대상을 얻는 결과이다.

인간의 존재구조나 양상을 통해 수수작용의 유형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수수작용의 유형에는 내적인 수수작용과 외적인 수수작용이 있다. 인간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적성상(內的性相)과 내적형상(內的形狀)의 내적인 상대적 관계와 마음과 몸의 외적인 상대적 관계의 2단구조³³⁾가 그것이다. 여기서 내적인 상대적 관계는 인간의 마음 내부에 내적성상적 요소인 지정의의 욕구와 내적형상

29) 위의 책, 59쪽.

30) 위의 책, 141쪽.

31) 위의 책, 98쪽.

32) 위의 책, 93쪽.

33) 위의 책, 99쪽.

적 요소인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관념, 개념, 원칙, 수리적 요소가 맺는 관계이다. 이를 통해 내적인 수수작용이 이루어진다. 인간이 몸으로 보여주는 행동은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수수작용인 성찰의 과정을 거쳐서 밖으로 표현된 외적인 수수작용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두 내외적 수수작용은 분리될 수 없으며 상호 연관되어 나타난다. 대화에 있어서도 내면적 대화와 외적 대화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내외적 대화는 분리되면 신뢰감을 줄 수 없다. 타인과의 대화는 내외적 대화가 종합화되어 나타난 형태이기 때문이다.

둘째, 수수작용의 유형에는 자기동일(自己同一)적 수수작용과 발전(發展)적 수수작용이 있다.³⁴⁾ 자기 동일적 수수작용은 심정을 중심으로 수수작용 하여 그 결과가 합성체(合性體)인 수수작용이다. 이 때 합성체는 수수작용을 하기 전과 한 이후의 성상과 형상의 결과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결과이다. 대화의 많은 부분은 상호 일치나 공감대 형성의 대화이다. 대화만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어도 갈등요인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계기를 준다. 다음으로 발전적 수수작용은 목적이 중심이 되고 수수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결과물인 신생체(新生體)를 형성하는 수수작용이다. 여기서 신생체는 수수작용의 주체와 대상과 다른 제 3의 대상이다. 대화에 있어서도 새로운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실천적 대화가 가능하다. 이 때의 대화는 구체적인 목적에 따른 실천적 행위가 수반되는 대화이다.

Ⅲ. 통일사상으로 본 대화의 이해

1. 대화의 구조와 유형

수수작용의 한 형태를 대화로 본다면 대화의 기본 구조는 수수작용의 형태에 준해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대화의 공간적 구조는 사위기대(四位基臺)³⁵⁾의 형태를 띤다.

통일사상으로 본 대화는 기본적으로 4개의 구성 위치를 갖는다. 대화의 동기나 목적, 발화자, 수화자, 대화에 따른 결과가 그것이다. 이 4개의 구성 위치는 고정적이지만 그 안의 구성요소는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다. 대화는 사위기대를 구성하여야 온전한 구조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사위기대는 대화에 따른 수수작용이 원만히 이루어진 형태이기 때문이다. 사위기대는 3대상 목적³⁶⁾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3대상 목적이 이루어진 대화란 발화자나 수화자가 대화의 동기나 목적, 그에 따른 결과에 의하여 상호간에 주체이면서 대상의 역할을 함께 수행이 가능한 대화이다.

34) 위의 책, 100-103쪽.

35) 위의 책, 84쪽.

36)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앞의 책, 34쪽.

통일사상으로 본 대화는 사위기대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의 요건을 가진다. 첫째, 대화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속성인 심정³⁷⁾에 의한 동기나 목적이다. 현실적 대화의 중심은 이기심 및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자 하는 동기까지 다양할 수 있지만 궁극적 목표는 심정을 지향한다는 관점이다. 대화가 원만해질수록 상호 공감할 수 있는 심정에 의한 대화에 접근한다는 시각이다.

둘째, 대화는 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공통요소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화의 상대적 관계는 대화의 동기와 목적에 따른 발화자와 수화자의 역할과 그에 따라 반응 하는 것이다. 공통요소를 찾는 과정은 대화의 화제에 나타난 상호 소통의 요소나 공감대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대화는 서로 다른 입장과 위치에서 상호 존중과 다름의 인정에서 대화적 관계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각자의 입장에서 취하는 동기나 목적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공통요소를 찾아갈 수 있다.

셋째, 대화는 지속하는 과정이다. 대화는 발화자와 수화자의 위치와 역할을 바뀌가며 지속하는 과정이다. 『통일사상요강』에 의하면 수수작용의 특징은 원만성, 조화성, 원활성에 있다.³⁸⁾ 대화는 지속 할수록 상호간에 원만해지고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 상호간의 갈등 요소의 해결을 우선하기 보다는 공통요소를 먼저 찾는 대화가 지속 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넷째, 대화는 반드시 결과를 갖는다. 대화는 상호간에 일치나 소통을 가져다준다. 또한 대화는 창의적 결과물을 얻게 한다. 이러한 대화의 결과는 일시에 이루어지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결과다. 사위기대는 수수작용을 통한 3대상목적이 완성³⁹⁾될 때 가능하듯이 대화는 지속적으로 나누면서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의 목적에 따른 결과를 공유하면서 이를 반영하는 지속적인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화는 어느 일면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생활적 면에서 가능하지는 못하다. 단순한 언어적 나눔에 그치지 않고 생활권을 함께 이해하고 공감할 때 대화의 영역은 그 만큼 확대 될 수 있다.

통일사상으로 본 대화의 유형은 수수작용에 의존한다. 수수작용은 내외적 수수작용과 심정·목적 중심 수수작용으로 유형을 분류할 수 있듯이 대화에 있어서도 내외적 대화와 심정·목적 중심의 대화로 구분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화는 내면적 대화와 외적 대화로 구분 할 수 있다. 내면적 대화는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이다. 이것은 마음 안에 형성된 지정의(知情意)의 욕구⁴⁰⁾와 이미 내면에 형성된 관념이나 개념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이다. 내면적 대화는 하고자 하는 욕구와 현실적 상황에 따라 형성된 관념과의 갈등요소가 극복되는 과정에서 성사된다. 때로

37) 통일사상연구원, 앞의 책, 58쪽.

38) 위의 책, 86쪽.

39) 위의 책, 149-151쪽.

40) 위의 책, 244쪽.

는 기도나 명상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내면적 욕구를 표현하고 외적인 상황을 자신의 내면에 투영시키는 반복의 과정에서 내면적 대화는 이루어진다. 외적인 대화는 내면의 대화를 통해서 형성된 개념을 타인과의 대화관계에서 표현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외적인 대화는 대화 당사자의 상황과 입장의 고려가 필요하다. 외적인 대화는 내면에 형성된 욕구나 감정이 표현된 개념화된 언어와 대화의 상대자를 고려한 언어 표현 방식과 표현태도를 포함한다. 그런데 내면적 대화와 외적 대화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인간은 내외적 사위기대의 2단 구조⁴¹⁾를 가진 것처럼 대화에 있어서도 내외적 대화의 2단구조가 종합적으로 형성한 형태다.

둘째, 대화는 심정이 중심이 된 대화와 심정을 중심한 목적이 중심이 된 대화로 구분할 수 있다. 심정이 중심이 된 대화는 그 결과가 주체와 대상이 하나 되는 합성체를 형성하는 자기 동일(自己同一)적⁴²⁾ 대화이다. 반면에 심정을 중심한 목적이 중심이 될 때는 대화를 나누는 주체나 대상과는 다른 결과물이나 작품을 낳게 하는 발전(發展)적⁴³⁾ 대화이다. 자기 동일(同一)적 대화는 서로 소통하고 하나 되는 대화이다. 대화를 나누기 전과 후에 있어서 마음과 몸이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대화이다.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하나 되는 대화이다. 자기동일적 대화는 인간 자체 안에서 심정과 하나 된 자아를 발견하는 대화,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호 일치된 결과를 얻는 대화, 심정공동체를 형성하는 대화이다. 발전(發展)적 대화는 새로운 결과를 얻는 대화이다. 발전적 대화는 상호간의 대화를 통해서 신생 작품을 얻거나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대화이다. 이때의 대화는 새로운 결과물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신생체를 얻는 실천을 병행한 대화이다.

내면적 대화와 외적인 대화, 자기동일적 대화와 발전적 대화는 또한 상호 연관성을 맺는다. 내면적 대화에도 자기동일적 대화와 발전적 대화를 형성하고, 외적인 대화에도 자기동일적 대화와 발전적 대화를 갖기 때문이다.

2. 대화의 목표와 단계

대화의 목표는 대화의 동기나 목적에 따른 결과에 도달하는 것이다. 대화는 일시에 실현되고 끝날 수 없다.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부족한 것은 서로 채워주면서 점진적으로 보완 하는 과정이다. 수수작용의 완성은 사위기대 실현에 있듯이 대화의 목표는 사위기대형의 대화구조의 완성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

통일사상으로 본 대화의 목표 실현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선의 대상이 되는 3대축복

41) 위의 책, 97쪽.

42) 위의 책, 95쪽.

43) 위의 책, 95쪽.

완성에 있다.⁴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은 심정적 존재가 되는 데 있다. 3대축복의 완성은 개인적, 가정적으로 심정적 존재가 되는 데 있으며, 자연환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치를 실현하는 만물주관주⁴⁵⁾가 되는 데 있다.

통일사상에서 바라는 대화의 목표를 3대축복의 관점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한 대화가 가능한 존재가 되는 데 있다. 인간은 심정적 대상으로 지음 받았다. 인간은 일정한 성장기간⁴⁶⁾을 거쳐서 심정체화를 통해서 심정적 존재로 성장하도록 지음 받은 존재이다. 심정은 처음부터 상속받을 수 없다. 인간은 성장과정을 거쳐서 심정을 닦아가는 존재이다. 심정은 인격의 핵심이다.⁴⁷⁾ 심정은 인간의 지정의(知情意)의 욕구를 자극하는 원동력이다.⁴⁸⁾ 심정적 대화는 심정이 동기가 된 내면적 욕구를 표현하는 대화이다. 또한 심정적 대화는 외부의 상황과 여건에 대해서 심정의 관점에서 수용하는 대화이다. 개인적으로 심정을 중심한 대화는 일시에 불가능하다. 점진적 과정을 통해서 실현하는 대화이다.

둘째, 가정적으로 심정을 중심한 대화권(對話圈)을 이루는 것이다. 통일사상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은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체이시다.⁴⁹⁾ 이것은 아버지의 모습과 어머니의 모습을 동시에 지닌 부모의 하나님을 뜻한다. 따라서 가정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심정적 대화가 가능한 존재가 가정을 이루어서 심정을 중심한 가정적 대화권을 이룬 형태이다. 가정적 심정의 대화권을 이룬 부부는 하나님의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二性性相)의 일성(一性)을 대표하는 존재이다.⁵⁰⁾

셋째, 인간과 자연이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하고 하나 되는 심정적 대화권을 이루는 것이다. 심정을 중심한 대화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대화에 그치지 않는다. 인간과 자연이 합일되는 대화까지 의미한다. 인간은 자연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인간 대화의 대부분의 표현은 자연과 연관 있기 때문이다. 『원리강론』에 의하면 인간은 만물의 주관주로 지음 받았다.⁵¹⁾ 자연만물은 그 본연의 가치가 인간에 의해서 드러나도록 지어진 존재로 이해한다. 따라서 자연만물은 인간의 지배대상이 아닌 인간에 의해서 가치가 실현되어야 할 존재이다. 결국 인간과 자연이 심정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대화는 천지인(天地人) 일치의 대화권을 추구한다. 이러한 심정적 대화권은 에텐동산의 실현이며 심정공동체의 형성이다.

대화의 단계는 정분합 작용⁵²⁾에 근거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대화의 중심이나 목적

44)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앞의 책, 45-49쪽.

45) 위의 책, 48-49쪽.

46) 위의 책, 56쪽.

47) 통일사상연구원, 앞의 책, 243쪽.

48) 위의 책, 244쪽.

49) 위의 책, 44-45쪽.

50) 위의 책, 236-237쪽.

51)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앞의 책, 48-49쪽.

인 정(正)을 수립하는 단계, 대화의 주체와 대상의 상대적 관계를 설정하는 분(分)의 단계, 대화를 통한 구체적인 결과에 이르는 합(合)의 단계가 그것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화의 목적과 동기를 세우는 단계이다. 『통일사상요강』에서는 진정한 대화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중심 속성인 심정이 대화의 동기가 될 때 원만한 대화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⁵²⁾ 대화의 목적과 동기를 세우는 것은 대화를 나누기 전(前) 각자가 세워야 한다. 먼저 마음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결정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동기에 이미 대화의 동기나 목적이 반영된다. 발화자가 먼저 대화의 동기와 목적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수화자가 그대로 따를 수는 없다. 수화자에게는 발화자의 의도와 목적을 분석하고 확인하려는 의도가 먼저이다. 대화의 관계가 설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대화의 의도와 목적을 먼저 설명하고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기대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믿음의 기대를 쌓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방을 위해서 정성을 드리고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모의 입장에서 상대를 대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대화의 목적에 따라 주체와 대상의 상대적 관계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상대방과의 대화관계가 원만하게 설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발화자 자신의 마음과 몸의 관계가 일치되어야 한다. 발화자의 말과 그에 따른 행동이 일치되는 입장에 있을수록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 대화를 위한 기본적인 태도는 동등한 대우이다.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자리에서는 대화가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동등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설정되어야 대화가 가능하다. 또한 대화의 상대자보다 낮은 자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적으로는 상대방보다 우위의 자리에 있다할지라도 낮은 자리에서 대하는 태도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함께 자신과의 관계 설정을 위한 열린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말하고자 하는 자리보다는 듣고자 하는 자리에서 임할 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 설정이 쉽다.

셋째, 대화를 통한 반응이나 구체적인 결과를 구성하고 성찰하는 단계이다. 대화는 심정이 동기가 될 때 의사소통에 의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결과를 구성하고, 심정에 의한 목적이 동기가 될 때 신생체를 구성한다. 대화는 상호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성한 결과물을 얻는 과정이다. 구성은 대화 당사자 간의 합의된 결과물이다. 대화는 상호간에 형성된 공감대를 확대할수록 그 영역의 중대를 가져온다. 심정에 의한 목적을 중심한 대화는 신생체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창조적 결과를 얻는다. 이는 새로운 결과물을 구성하기 위한 계획안이고 설계도 작성의 대화이다. 심정의 관계를 유지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을 창조하는 대화이다. 이상세계는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계획의 단계에서부터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함께 의견을 모으는 창조적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는 구

52) 통일사상연구원, 앞의 책, 141-148쪽.

53) 위의 책, 243쪽 참조.

성 결과에 대한 성찰의 과정을 포함한다.

3. 심정의 대화법 논의

1) 심정의 대화 개념

통일사상으로 본 대화의 핵심은 심정의 대화이다. 심정의 대화는 심정이 중심이 되어서 나누는 대화이다. 여기서 심정은 하나님의 중심 속성으로 대상의 여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위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⁵⁴⁾이 동기가 된 대화이다. 심정의 대화는 인간이 추구하는 대화의 목표이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심정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타락성(墮落性)⁵⁵⁾이나 이기심이 중심이 된 대화를 나누기 쉽기 때문이다. 심정의 대화는 먼저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여 심정에 의한 내면적 대화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심정의 대화는 심정에 의한 공감의 대화와 심정에 따른 실천의 대화의 통합의 형태이다. 이러한 심정의 대화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정에 의한 공감의 대화이다. 이것은 심정의 공감을 통해 소통하고 일체감을 형성하는 대화이다. 인간은 성장하면서 사랑을 배워간다. 인간이 심정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심적 상태를 공감하는 것이 우선이다. 심적 상태는 같은 처지나 입장에서 겪을 때 가능하다. 『통일사상요강』에서는 하나님의 심정의 표현 형태를 소망의 심정, 슬픔의 심정, 고통의 심정으로 설명한다.⁵⁶⁾ 여기서 심정의 표현 형태란 한없이 사랑하고 싶은 정적인 충동이 동기가 되어 나타나는 심적 상태이다. 소망의 심정은 창조를 통해서 기대하고 바라시는 심정이며 슬픔의 심정은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없는 심정이며 고통의 심정은 타락한 인류나 중심인물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같이 느끼는 심정이다. 심정에 의한 공감의 대화는 대화의 동기가 일치해야 한다. 상대를 사랑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말하고 듣는 입장이다. 동기가 다르면 자신의 내면의 심적 상태를 설명해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다. 서로 이해하고 위하려는 동기가 대화의 중심이다. 이를 통해 대화하는 상대방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위로나 신뢰가 형성 될수록 심정에 의한 공감의 대화는 용이하다. 또한 결과는 인위적으로 유도하지 않고 다만 함께 나누고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데서 얻는 편안함이나 위안이다.

둘째, 심정에 따른 실천의 대화이다. 이것은 심정의 실천을 통해 심정권(心情圈)⁵⁷⁾을

54) 위의 책, 59쪽.

55) 타락성이란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성품으로 하나님의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것, 자기의 위치를 떠나는 것, 주관성(主觀性)을 전도(顛倒)하는 것, 범죄행위를 번식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앞의 책, 100-101쪽 참조.

56) 통일사상연구원, 앞의 책, 354-356쪽.

57) 심정권(心情圈)은 심정의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 영역이다. 심정권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가정의 사랑영역이다.

형성하고 발전하는 대화이다. 심정에 따른 실천의 대화는 단순한 이야기를 나눔의 차원을 넘어서서 상호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화를 포함한다. 심정에 따른 실천의 대화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대화 상대자의 뜻에 맞추어 행동하는 실천의 대화와 공동의 목적에 따라 함께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려는 실천의 대화가 그것이다. 상대방의 뜻에 따라 나누는 실천의 대화는 개체간의 뜻에 따라 실천하면서 나누는 대화이다. 이는 일방적인 뜻을 추구하는 실천보다는 양방 모두의 뜻에 따라 실천하는 대화로 이어져야 가능하다. 공동의 목적을 중심한 실천의 대화는 심정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대화이다. 심정공동체는 하나님의 속성인 심정이 중심이 된 공동체이다. 이러한 실천의 대화는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차원뿐만 아니라 이를 발전시키고 지속시킬 수 있는 심정에 의한 대화권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심정의 대화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을 나누는 대화이다. 상호간에 심정에 의한 공감대를 형성함과 동시에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심정의 실천을 통한 대화이다.

2) 심정의 대화법

심정의 대화법은 심정에 의한 공감과 심정에 따른 실천의 통합이 가능하게 하는 대화 방법이다. 공감과 실천의 통합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다. 심정적 대화법은 내면적 공감을 외적인 실천적 공감으로 확대하는 과정과 외적인 실천의 결과에 대한 성찰을 통해 내면적 공감으로 수용하는 과정의 반복이다.

이러한 심정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심정의 대화법은 통일방법론⁵⁸⁾과 연관 있다. 통일사상에서 본 통일(統一)의 개념은 일방적인 획일이나 혼합의 의미가 아니다. 인간의 마음과 몸이 지속적으로 상대적 관계를 맺으며 하나의 결과를 지향하면서도 엄연한 구분을 갖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마음과 몸은 일방적으로 획일화되어 존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통일은 상대적 관계가 유지되어 상호 일치성을 추구하는 개념이다. 통일은 마음과 몸의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상호 일치되고 공감대를 이룬 개념이다. 동시에 통일의 개념은 공동의 목적을 지향하는 개념도 포함한다. 서로 다른 존재가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면서 다양한 실천의 방식을 포함한 총체적 개념이다. 개인적 다양성을 포용하면서 공동체의 속성도 함께 지닌 개념이다.

이러한 통일의 개념을 바탕으로 심정의 대화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정의 내면화이다. 심정의 내면화는 심정에 의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회복이다. 내면화는 지정의(知情意)의 욕구를 개념화하고 외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지적활동, 정적활동, 의적활동으로 표현하면서 지정의의 욕구의 원동력으로서의 심정을 체험하는 과정이다. 심정의

58) 통일사상연구원, 앞의 책, 671-680쪽.

내면화는 먼저 분립(分立)의 단계를 거친다. 중간위치⁵⁹⁾에 떨어진 상태에서 선악을 분립하여 양심을 찾고 본심을 찾아가는 단계이다. 이어서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단계이다. 외부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일관된 판단기준하에서 보여주는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는 옳다고 판단한 양심의 기준에 순종하는 태도이다. 이를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관된 심정의 대화태도를 갖는 것이다.

둘째, 심정의 일치화이다. 이것은 심정의 내면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고 하나 된 경험을 대화를 통해서 상대와 공감하고 하나 되는 과정이다. 심정의 일치화는 사랑의 자연적 굴복과 감동을 통해 얻는 대화법이다. 문선명 선생의 말씀에 따르면 “부모의 심정으로 종의 몸을 쓰고”⁶⁰⁾ 상대를 대하는 방법이다. 부모의 심정이란 내적으로 자신의 기준이나 입장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모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위하려는 입장이다. 종의 몸을 쓰라는 것은 외적으로 상대방보다 낮은 자리에서 임하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내적으로는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부모 입장을 취하고, 외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는 낮은 입장을 취하여 상대적 관계가 용이토록 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이다. 심정의 일치화는 일시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상호간에 신뢰감이 형성되고 감동을 통한 심정의 소통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셋째, 심정의 생활화이다. 이는 심정의 대화가 대인관계를 넘어 공동체 내에서 가능토록 하는 대화법이다. 작게는 심정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실천의 대화를 생활화 하는 데 있다. 크게는 심정의 공감대를 형성한 가정형의 관계를 모형으로 하여 심정의 공동체⁶¹⁾를 형성하여 심정의 대화권을 만드는 데 있다. 심정의 생활화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생활의 대화이다. 심정의 언어를 창출하고 함께 사용하며 생활화하는 대화이다. 또한 심정의 충동에 따른 지정의(知情意)의 욕구를 활동으로 나타내고 그에 따른 심정문화세계⁶²⁾를 건설하기 위한 창조적 대화이다.

심정의 대화법은 위에서 열거한 심정의 내면화, 심정의 일치화, 심정의 생활화를 위한 대화의 통합방법이다.

59) 중간위치란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인간을 주관할 수 있고, 사탄은 타락시킨 장본인으로써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중간의 입장을 말한다. 중간위치는 하나님이나 사탄이나 일방적으로 인간을 대할 수 없음을 뜻하며, 오히려 인간이 사탄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조건을 세우는 적극적 실천의 책임이 필요하다.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앞의 책, 242쪽.

60)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편,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제15권 (서울: 성화출판사, 1986), 90쪽.

61) 심정의 공동체는 심정문화세계와 맥을 같이 한다. 심정의 공동체는 공생공영공의주의(共生共榮共義主義)로 설명하기도 한다. 공생은 경제 개념으로 심정의 바탕 위에 공동생산과 적정 소유에 따른 공동분배를 뜻하고, 공영은 정치 개념으로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한 공동참가의 정치이다. 또한 공의는 공동윤리의 사상으로 모든 사람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도덕과 윤리를 준수하고 실천하는 도의사회를 말한다. 통일사상연구원, 앞의 책, 761-784쪽 참조.

62) 통일사상연구원, 앞의 책, 62-63 쪽.

IV. 맺으며

통일사상으로 본 대화의 특징은 인간과 자연의 존재구조와 존재양상에 따른 수수작용의 유형과 형태와 맥을 같이 한다는 점이다.

인간과 자연의 존재구조를 보면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상대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자체 내에서와 다른 존재들과의 사이에서 상대적 관계를 맺고 수수작용을 통해 생존, 작용, 번식하도록 되어 있다. 상대적 관계를 통한 수수작용은 상호간에 의사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의견 나눔의 과정인 대화가 필요하다. 성상과 형상의 상대적 관계를 띤 인간은 필연적으로 대화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고 창조하는 대화적 존재이다.

대화는 수수작용의 형태와 유형에 의존한다. 대화는 주체와 대상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고 의견을 나눌수록 서로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사소통이 더욱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수수작용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제작하는 발전적 과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수수작용은 관계를 맺는 동기나 목적, 관계를 맺는 주체와 대상, 관계를 맺고 주고받음을 통한 결과로 이루어진다. 수수작용은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이거나 반드시 관계의 중심과 주체와 대상, 그에 따른 결과의 사위기대를 형성할 때 온전히 이루어진 형태다. 마찬가지로 대화에 있어서도 대화의 동기나 목적, 대화하는 주체와 대상, 대화를 통한 결과를 수반하여 사위기대(四位基臺) 형(型)을 이루게 될 때 온전한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대화의 유형은 내적인 대화와 외적인 대화, 심정을 중심한 대화와 심정에 의한 목적을 중심한 대화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심정을 중심한 대화는 자기동일적 대화이고, 심정에 의한 목적을 중심한 대화는 신생체를 형성하는 발전적 대화이다.

대화의 목표는 대화의 동기나 목적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심정의 대화의 목표는 3대축복을 완성하는 대화이다. 개인적으로 심정에 의한 대화, 가정적으로 심정적 대화권을 형성하고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어 심정공동체의 대화권을 형성하는 것이다.

대화는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대화의 동기나 목적을 세우는 단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적 관계를 수립하고 대화하는 단계, 대화의 결과물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단계가 그것이다.

심정의 대화는 상관적 구성과 성찰을 통해 이루어지는 심정적 공감의 대화와 심정적 실천의 대화의 통합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심정의 대화법은 심정의 내면화, 일치화, 생활화를 통해서 심정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 되어 생활의 대화권을 형성하는 데 있다.

심정의 대화법의 관점에서 종교교육을 보면 무엇보다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사는 하나님과 심정으로 하나 되는 선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바탕 위에서만 학생을 하나

님과 하나 되는 심정의 관계로 이끌 수 있다. 특히 심정의 대화는 단순한 언어 전달 교육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한 경험의 나눔의 장으로서의 교육이다.

따라서 심정의 대화법을 통한 심정의 교육은 교사나 학생이 자체적으로 말씀에 따른 실천과 그에 따른 성찰의 경험을 통해 심정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과 함께 심정문화를 형성하는 실천으로 구체화 해보는 과정의 통합이다.

인간은 누구나 심정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대화와 지속적으로 사랑에 의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실천의 대화를 병행하며 살아간다. 심정의 공감과 실천의 대화를 통해 심정의 내면화, 심정의 일치화, 심정의 생활화를 위한 대화법의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심정적 대화법은 앞으로 이론과 실천이 통합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제시하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금성출판사사서부. 『국어사전』. 서울: 금성교과서주식회사. 1988.
-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편.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제15권. 서울: 성화출판사. 1986.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 서울: 성화출판사. 1994.
- 슈테판 슈트라서, 김동성. 『현상학적 대화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2.
- 이규호. 『대화의 철학』. 서울: (주)시공사. 1999.
- 이재영. 『심정교육론 연구』. 서울: 성화사. 1989.
- 이재일. 『통일종교교육개론』. 충남: 선문대학교 출판부. 2005.
-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서울: 성화출판사. 1994.
- Freire, Paulo. *Pedagogy of the Oppressed*. 남경태. 『페다고지』. 서울: 도서출판 그린비. 2007.

원고접수: 2010년 5월 26일 1차심사: 6월 3일 게재승인일: 6월 10일

연구자소개: 조광봉

① 전공: 종교교육 / 소속: 청심신학대학원대학교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영성교육, 종교철학

③ 주요논저: 『통일영성의 이해』 『통일영성 연구와 실제』 「고통 받는 인간의 해방교육에 관한 통일신학적 연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영성교육의 개발 모형에 관한 연구」

④ E-mail: kbcho33@hanmail.net

Abstract

The Understanding of Dialogue from the Viewpoint of Unification Thought

Cho, Kwangbong

Cheongshim Graduate School of Theology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systematize a dialogue from the viewpoint of Unification Thought that is one of doctrine of Unification Church. With this foundation, I try to arrange the dialogue of *Shimjung* that is the core of the attributes of God.

According to the Unification Thought, human is a beings to make the relationship with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dialogue between not only the inside itself but also among others. Human is a beings of dialogue to exist through the correlative relationship.

The *shimjung* is the feeling's impulse to do for the good. The *Shinjung* is understood the main character and a creation motive of God. The *shimjung*, also, is a motive of life and a future oriented goal of life. According to the Unification Thought, the ideal human beings is the beings of *Shimjung*. The existence structure of human of the *Shimjung* have an effect on the Dialogue's structure and the dialogue's method. human pursue a dialogue to restore the relationship of *Shimjung*

According to the Unification Thought, human have a dialogue's structure of inner and outer because he not only possesses the correlative elements of subject and object within itself but also engages in external correlative relationships with other beings. This dialogue have two type of dialogue to sympathize or to communicate with a person and to construct a new creative things. This dialogue has a three steps, that is, first step is to set up a motive and a purpose, Second step is to have a correlative relationship, third step is to construct a union or a created being.

The dialogue of *Shimjung* is a dialogue that has a motive or a purpose of *Shimjung* of a core of the attributes of God. The dialogue of *Shimjung* has a dialogue for consensus of *Shinjung* and a dialogue for practice of *Shimjung*.

The dialogue's method of *Shimjung* is a method to present how can effect of dialogue

with *Shimjung*. That is, first of all, a internalization of *Shimjung* of internal itself dialogue, and a harmonization of *Shimjung* with a dialogue of external others, and a way of life of *Shimjung*.

Key words : dialogue, give and receive action, the four-position base, origin-division-union action, dialogue of shimjung, consensus of Shinjung, practice of Shimjung, dialogue's method of shimjung